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법거량(法擧量)에 대해

내가 해인사에 머문 기간은 1967년에서 1973년까지 6년 남짓이다. 당시 해인사에는 성철 스님이 방장으로 계셨고 용탑전에는 고암 스님이 계셨다. 영암 스님, 자운 스님, 지월 스님, 일타 스님, 혜암 스님, 법전 스님, 지관 스님 등도 해인사의 대중이셨다. 이분들 중 고암, 성철, 혜암, 법전 스님께서는 종정을 역임하셨고 지월 스님, 일타 스님께서는 수행의 참 스승으로 전설이 되신 분이다.

해인사 선원에 자주 다녀가시는 분으로는 청담 스님, 서옹 스님, 향곡 스님 등 당대 최고의 선지식 스님들이 줄을 이었다.

선원의 구조는 3개월을 용맹정진하는 조사전 선원과 가행정진의 퇴설당 선원, 그리고 구참과 신참이 어우러져 한방에서 정진하는 대중 선원이 있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선원의 정진 대중은 70명에서 80명에 이르는 스님들이 매섭도록 마음을 다잡아 간절심으로 정진했다.

물론 해인사는 종합수도 도량인 총림(叢林)이므로 강원(講院)과 율원(律院), 염불원(念佛院) 등이 갖춰져 있었다. 헤아려 본 것은 아니지만 당시 해인총림의 대중은 200여 명에 산내암자까지 합하면 400여 명일 터이다.

당시만 해도 법거량(法擧量)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자주 있었다. 법거량이란 수행 정진해 열린 마음의 지혜를 스승을 찾아 묻고 그 물음의 깊고 낮음을 판단해 답하는 법(法)의 저울질인 셈이다. 방장이신 성철 스님이 법상에 올라 설법하실 때도 간혹 있으나 선원의 대중 방에 고암, 성철, 서옹, 향곡 스님 등이 계실 때 활발하게 법거량이 이어졌다. 드물게 청담 스님께서도 참석하시어 법거량하는 눈 푸른 스님들이 당시엔 많이 계셨다. 당시 법거량 하시던 많은 스님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몇몇 스님은 이 곳 저 곳의 선원에서 후학(後學)지도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법거량은 생명력을 잃고 희미한 그림자만 남긴 채 사라져 가고 있다. 법상(法床)에 올라 설법하는 사자후(獅子吼)도 쩌렁쩌렁한 울부짖음의 울림이 아니라 중국 선사들의 외침을 짜깁기하는 수준에서 날이 갈수록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용상(龍象)의 자리에 서열 위주의 문중 대표가 앉아 억지 법문을 종이에 적힌 대로 읽는 해프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거짓과 가난은 금방 드러난다는 몽골 속담이 있다. 한 문중의 대표적 어른이라면 수행인으로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당연히 후학(後學)들을 지도함이 타당할 터이다. 그러나 마음 열린, 깨달음의 선지식(善知識)은 아닌 것이다.

경전의 사구게(四句偈)에도 막히고 조사어록에도 헤맨다면 그는 앞도 캄캄하고 뒤도 캄캄한 흑암(黑暗)선사일 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짓 설법은 몽골 속담처럼 불편한 가난처럼 환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어느 날 해인사의 노스님 한분이 사자암에 오셨다. 그 스님이 내게 물었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할 경우 어느 곳에 이르게 됩니까?"

내가 대답했다. "날마다 좋은 곳(日日是好處)에 이르지요."

그 노스님이 다녀간 후 해인사의 다른 스님이 전화로 물어왔다. "몸과 마음에 한 물건도 지니지 아니했을 경우 그 다음 공부는 어떻게 해가야겠습니까?"

내가 대답했다. "놓아버려야지요(放下着)."

그 스님이 힘줘 다시 되물었다. "방금 몸과 마음에 한 물건도 지니지 아니했다고 했거늘 대체 무엇을 놓아버리라는 말씀인가요?"

"몸과 마음에 한 물건도 지니지 아니했다는 그 생각마저도 놓아버려야지요."

그 뒤 해인사에서 젊고 건장한 스님들이 눈이 오는 날 사자암에 찾아들었다. 그때 진돗개가 사납게 짖어댔다. 그 중 한 스님이 내게 말했다. "사자암, 사자암해서 사자암에 찾아 왔더니 사자(獅子)는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하네요."

나는 말하였다. "눈은 없고 귀만 달랑 붙어있어 그런 겁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만만찮게 대들었다. "그럼 사자(獅子)를 보여 주십시오."

"악!" 나는 사자후 하듯 큰소리로 할(喝)을 내질렀다. 또 한 스님이 내게 물었다. "용화세계에 출현할 미륵불은 언제 나타납니까?"

"발길 닿는 곳이 용화세계요, 만나는 사람이 미륵불이지요."

나도 남도 속이는 거짓 설법 안될 일
사자후같이 생명력 있는 법거량 필요

무상의 법으로 자객 계도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육조 혜능 선사 당시에 선종이 남북종파로 갈라져 크게 대립한 적이 있었다. 이른바 남돈북점(南頓北漸)이라는 말이 생겨 종지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다. 남돈의 혜능(慧能) 선사와 북점의 신수(神秀) 대사, 두 종주(宗主)는 너와 내가 없었지만 그들의 문도들은 서로 시기 질투로 대립하였던 것이다. 당시 북종의 문인들이 스스로 신수 대사를 옹립하여 6조로 삼고 혜능 선사가 의발을 전해 받았다는 말이 천하에 퍼진 것을 시기하였다.

이 무렵 혜능 선사가 자신에게 다가올 위해를 미리 알고 돈 10냥을 준비해 방에 놓아둔 일이 있었다. 북종의 문인들이 강서 사람 장행창(張行昌)을 매수하여 자객으로 보내 혜능 선사를 해치게 했던 것이다. 야밤에 행창이 칼을 품고 육조 혜능 선사가 거처하는 방으로 몰래 침입 육조를 죽이려 하였다. 이때 육조는 목을 길게 늘이고 태연히 앉아 있었다. 행창이 칼을 휘둘렀으나 빗나가 육조를 다치게 하지 못했다. 육조 혜능 선사가 타일렀다.

"올바른 칼은 삿되지 않고, 삿된 칼은 올바르지 않다. 내가 너에게 다만 돈 몇 냥을 빚졌을지언정 목숨을 빚진 일은 없노라."

행창이 놀라 까무러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서 애절히 뉘우치며 출가할 뜻을 말하니 육조 혜능 선사가 돈을 주면서 말했다.

"그대는 어서 떠나라. 대중이 알고 오히려 너를 해칠까 두렵다. 훗날 모습을 바꾸어 다시 오너라."

행창이 분부를 받들고 도망을 쳤다. 그리고는 다른 곳에 가서 계를 받고 스님이 되었다. 하루는 육조 혜능 선사의 말을 기억하고 멀리서 찾아와 육조 혜능 선사를 뵈었다. 육조 혜능 선사가 말했다.

"내가 오랫동안 그대를 생각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늦게 왔는가?"

"전에 화상께서 용서해 주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비록 출가하여 고행하긴 해도 끝내 깊은 은혜를 보답하기 어려우니, 오로지 법을 전해 중생을 제도하는 일뿐입니다. 제가 일찍이 〈열반경〉을 본 적이 있는데, 항상함과 무상함의 뜻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바라옵건대 화상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설명해 주십시오."

혜능 선사가 대답했다.

"무상함이란 곧 불성(佛性)이요, 항상함이란 착하고 악한 온갖 법을 분별하는 마음이니라."

"화상께서 말씀하신 바는 경문과 크게 어긋납니다. 경에서 말하기를 '불성은 항상하다' 했는데 화상께서는 도리어 무상하다 하셨고, 선하거나 악한 온갖 법과 나아가 보리의 마음까지 모두가 무상하다 했지만 화상께서는 '항상하다' 하시니, 이것은 서로 엇갈리는 것이라서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의혹을 일으키게 합니다."

"〈열반경〉은 내가 전에 무진장 비구니가 한 번 읽는 것을 듣고 즉석에서 강의해 주었는데, 한 글자 한 구절도 경문에 합치되지 않음이 없었고, 나아가 그대에게도 결코 어긋난 말을 하지 않았느니라."

"학인의 식견이 매우 우매하니, 화상께서 더 자세히 열어 보여주십시오."

"그대가 알겠는가? 불성이 항상하다면 어찌 다시 착하거나 악한 모든 법들을 말하겠는가? 이 겁이 다하도록 한 사람도 보리심을 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상(眞常)의 도리이다.

또 일체의 모든 법이 무상하다면 곧 사물마다 자체의 성품에 생사를 받아들임이 있으므로 참된 항상함의 성품이 두루하지 않은 곳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무상함의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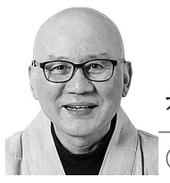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범부나 외도들이 그릇된 항상함에 집착하고 모든 이승(二乘)들이 항상함을 무상하다 계교함으로써 뒤바뀜을 이루기 때문에 진상(眞常), 진아(眞我)를 말씀하셨는데 그대는 말에 의지하여 잘못 해석하고 있으니 설사 천 번을 읽는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행창이 홀연히 술에서 깨어난 듯이 깨달았다. 그리고는 게송을 말했다.

"나는 이제 애쓰지 않고도 불성이 버젓이 앞에 나타났으니 스승께서 주신 바도 아니며 나 또한 얻은 바가 없다네."(我今不施功 佛性而現前 非師相授與 我亦無所得)

이리하여 조사로부터 뜻을 꿰뚫었다고 지철(志徹)이라는 이름을 받고 절을 하고 물러났다.

마음은 에너지, 몸의 작용 형성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⑨ 에너지와 마음

과학은 우리들 몸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 모든 대상과 접촉하여 얻어진 자료가 뇌로 이동해 저장되며 처리되는 과정으로,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뇌의 기능으로는 우리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작용과 더불어 생사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뇌의 중요성에 대해 뇌과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어느 과학자는 '뇌는 즉 나이며 몸은 그 부속품이다'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나, 실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변(邊)에 머물러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는 이분법인 분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뇌 과학이 발전하여도 뇌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있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비록 우리들 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뇌는 스스로 있지 못하고 몸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에 의하면 뇌의 구조와 기능 가운데, 눈이 사물을 보고 얻어진 자료는 신경을 통하여 뇌로 전달, 저장되어 희, 노, 애, 락하고 논리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하며, 운동명령을 내리는 등의 모든 활동을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을 보는 것은 눈이 아닙니다. 눈의 역할은 수정체에 사물이 비치는 역할뿐이므로 눈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비친 대상이 신경의 통로를 거쳐 저장되게 하며, 뇌가 희, 노, 애, 락하고 논리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하며, 운동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의 수정체에 대상이 비치게 하는 것, 신경을 통하여 전달, 저장하는 것, 희, 노, 애, 락하는 것, 논리적 사고와 의사결정 및 운동명령을 내리는 것은 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모든 구조와 기능이 작용하는 것은 에너지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구조와 기능은 에너지에 의해서 작용하고, 에너지는 구조와 기능에 의해서 작용하므로 자동차와 에너지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에너지가 둘이 아닌 것이 본체이고, 자동차와 에너지가 하나도 아닌 것이 작용이며, 자동차와 에너지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진공이고, 자동차와 에너지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이 묘유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에너지는 허공과 다르지 않고, 허공은 이 마음과 수명을 같이하며, 우주와 에너지, 허공은 이 마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주의 일체 존재는 에너지입니다. '원자와 전자 같은 물질의 소립자는 에너지가 파동(波動)하는 모습이다' 라고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별과 지구의 산, 강, 땅, 사람 등 모든 모양은 에너지가 진동, 회전하는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에너지가 파동 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고 싫어하며 분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파동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별망념의 파동 하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착시(錯視) 또는 착각(錯覺)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눈병이 난 사람이 허공에 핀 허공 꽃을 보는 것과 같아서 눈병이 있는 한, 허공 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망념을 여의지 못한다면 착시와 착각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현문 현각

총무부원장 석담 성우 총무부장 현인 보원 교무부장 현진 영현 재무부장 현경 대암
호법부장 현수 대선 사회부장 서법 자광 포교부장 현전 성현 비구니부장
사무처장 이민숙 사무국장 장백선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 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 무 원

법당 상황따라!

마이크 단추 한 번 누름에서 장엄하고 위엄어린 소리!
청아하고 은은한 소리! 구슬프게 젖어드는 소리가
연출되어 '재' 스님들에게는 평생 밥줄 마이크!

장사 수단

각종 염불시설을 갖추고 법당에서 소리만 비교 후 쌔엥! 가버리면 아! 그 소리 듣고나서 염불이 너무 힘들어! 안되겠어! 한 번 들러요!

백팔번지 이곳은 각종 시스템을 진열하고 많은 스님들을 모십니다. 구경 한번 오시지요!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주)염불소리 ☎ 055)343-1191, 010-9471-2026